

칼럼

장기채 주필



이 시대 어른들은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웠다

가로등 및 들깨는 올해도 축정이란다. 쉼 틈이 없었던 거지. 너도 곧 좋은 날이 올거야. 지나고 바라. 사람도 밤 낮 밝기만 하다고 좋은 것 아니다. 보름 아녘던 그림 달 없고 그림 없었던 보름 달 없지. 어둠은 지나가는 거란다. 어떤 세상이 맨날 보름달만 있었나? 몸만 성하면 쓴다. 이정복의 시 '그림달'이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식에게 이보다 더 현명하고 따뜻한 다독거림이 있을까. 24시간 항상 밝은 데에서 자라는 들깨는 쉼 틈이 없어 축정이야 되듯이 사람도 밤낮 잘나가기만 하면 속이 비기 쉽다. 우쭐해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어른은 지나가기 마련이니 몸만 성하면 쓴다는 어머니의 말씀에서 삶의 자세를 배운다.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그렇게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웠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엄마 품을 떠나 무엇인가 배우려 다닌다. 엄마는 자녀에게 첫 스승이고 가

정은 자녀에게 첫 학교인데,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랑 보낼 시간 없이 이 밖으로만 나뉜다. 이 모두가 세상이 흐른다. 그러니 스승은 또 한 어머니나 다를까 아니다. '스승의 날'. 아무리 되뇌어 봐도 얼마나 송고하고 아름다운 말인가. 그림을 잘 그리는 철수는 선생님의 초상화를 그려 선물할 것이다. 손뜨개를 잘하는 연희는 선생님께 한 뼘 한 뼘 수놓은 손수건을 드릴 것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토닥거리며 "정말 고맙다"라고 할 것이다. 그 순간 눈가에 맺힌 정에 선생님과 학생은 참으로 기꺼워할 것이다. 스승의 날에 그려보는 모두의 바람이다. 그레야 스승의 날 아니겠는가. 요즘 교사들은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부담'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한다. 왜 이렇게 스승의 날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4월의 아픔에서 헤어 나지를 못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지키다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 이야기는 우리들 마음 구석까지 푹푹하게 한다. 스승의 날 풍습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또 있을까. 스승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려고 정한 날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준다고 한다. "스승의 날이 뭐기에 우리를 이렇게 서글프게 합니까" 이 말은 '스승의 날'에 푸념하는 어느 여선생님의 넋두리다. 언제부턴가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모두가 불편해진다. 오죽했으면 스승의 날 폐지 아니면 스승의 날을 학년말로 옮겨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잘못된 흔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노끈으로 잡아매거나 빗장이나 자물쇠로 단단히 채우겠다는 셈이다. 언덕을 무너뜨려 깊은 못을 메우겠다는 것인데, 못을 메웠다고 해서 또 물이 고이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어쨌든 교육은 예를 가르치는 데 있다. 이러한 예의 근원을 실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스승에게 감사 드리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스승의 날은 행사가 아니라 교육의 장인 것이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교사가 스스로 교사다운지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 역시 스스로 학생다운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퇴계 이황은 성의가 가득한 의로운 선물을 모두 받아야 할 것이며, 의롭지 않은 것은 모두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가벼운 물건은 받아서 절교하지 않은 뜻으로 보이고, 중한 물건은 물리쳐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치게 해야 함을 역설했다. 중한 물건을 준 학부모는 교사에게 교만함을 부릴 것이고 교사는 어긋남을 알면서도 무원칙의 처사를 일삼을 것이며,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한 학생들은 교사를 향해 불만을 터트릴 것이다. 어쨌든 현대사회에 들어 '스승'의 의미는 많이 퇴색돼 버리고 '제자' 들은 갈 곳을 잃었다. 방향성을 상실한 채 학생과 교사가 뒤엉켜 학교가 마구 흔들리고 있다. 어린 아이 구분 없이 삶의 무게는 견뎌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참 스승이 필요할 때다. 언제나 스승의 날에는 교문을 활짝 열고 교사들에게 활박웃음을 안겨주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社 說

광주 서구의회 제식구 감싸기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광주 기초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사이 도덕 불감증으로 인한 문제가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 서구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소속 의원들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최소한의 자정장치마저 외면 했기 때문이다. 서구의회는 최근 일부 소속 의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및 선거법 위반 등이 문제가 돼 왔다. 의회 홍보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의회 법인카드를 음식값을 계산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소속 정당 공천과정에서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 했다는 의혹과 또다른 의원은 불법선거에 연루됐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백화점식 불법·비위 행태에 대해 곳곳에서 거세게 비난이 일자 서구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잇따라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위 설치는 무산됐다. 의회 내부에서 '동료 의원을 처벌하는데 나서지 않겠다',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 '음해성 사심이 깃든 의도적 처사다' 라는 등의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법과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윤리위를 설치 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윤리위 구성을 미룬다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정작 자신도 홍보예산 유용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강 모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하겠다"며 직권으로 안건을 삭제했다. 결국 법에서 규정돼 있는 윤리위 구성조차 외면 한 것이다. 서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러고도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잘못을 따질 수 있는지 실소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 북구의회를 비롯해 연일 터져 나오는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우려가 크다. 자정 노력마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 폐해가 아닌가 싶다. 민주당은 당차원의 제재와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남의 인권을 존중하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살기 좋은 사회공동체가 되었으면 하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남의 인권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 평등한 세상 높낮이 없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 일부 기득권에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다. 이 기득권에서 왜 그렇게 목매일까? 바로 자신들의 이권과 이득 때문이겠지요. 평등한 세상, 갑질 없는 세상은 누

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닌 국민 스스로 만들고 또한 위정자들이 기득권을 없애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즘 갑질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을 마스크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다. 나보다 더 못하고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짝트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재발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겸손함이 없고 남을 함부로 대하는 인권존중사상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들 가슴에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회자된 것을 보면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 가슴 훈훈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나이, 성별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삶 속엔 사람과 사람이 얽혀진 관계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많다. 그중에서도 그 입장이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의 양상이 전혀 다른 면모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언제나 그들 사이는 친하게 웃고 있는

듯 하여도 깔끄러움이 존재할 수 있어서이다. 그 이유는 서로의 위치가 엄격히 달리 놓여 그 입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한 번쯤 서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본다면 다소나마 상호존중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그만 한 일에 서로가 손해 안 보려고 다투고 있는 것이 사회생활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생활한다면 개개인이 존경받고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국종균/광주북부소방서 행정지원팀장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